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피자와 치킨

옛날에 고희에 들른 적이 있었다. 어쩌다가 술집에서 현지 젊은이와 합석을 하게 되었다. 동네 정보도 듣고,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이탈리아 요리사' (정확히 하면 이탈리아식 요리사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다들 이렇게 쓴다. 일식과 한식은 또 바르게 쓴다. 왜 그렇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그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다.

"고흥에 와서 정통 피자집을 좀 해주세요.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배달집도 거의 없고, 면으로 가면 그나마 배달도 안 합니다."

한국이 배달 왕국이 된 요즘, 피자 배달이면 단위에 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고흥은 아이들도, 젊은이도 별로 없는데 피자 수요가 많아요?"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무슨 말씀요.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건 맞아요. 현대, 노인들도 피자를 좋아해요. 없어서 못 드시는 것이지."

그랬다. 노인들은 그저 물에 만 밥에 김치나 좋아하고 국밥 드시고 하니 외국식은 좋아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미리 짐작하지 않는가. '그들도' 별식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고 먹을 수 있으면 티본스테이크도 해산물 오일 스파게티도 좋아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였다.

지방 소의 문제는 교육과 문화, 의료의 심한 비대칭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음식도 포함된다. 흔히 '롯데권과 맥세권'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의 소멸 위기

를 말할 때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점이 있으면 문제 없고, 롯데리아가 있다면 '당분간은' 문제 없으며 둘 다 없으면 향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소멸단계로 들어간다는 씁쓸한 농담이다. 좀 결이 다르지만,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모두 '스케권'이라는 말이 통용된다. 스타벅스라는 커피브랜드가 들어와 있는가 하는 점이 부동산 가치에 직결된다는 얘기다. 스타벅스가 입점된 건물은 값이 오르고 (또는 이미 충분히 비싼 건물이며) 스타벅스가 들어갈 만한 건물은 곧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이라는 설명이다. 롯데권이니 스케권이니 하는 말의 전박함이 허를 차게 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구한말에 전기 놓고 기차와 전차도 들고 할 즈음에 일본에 강제 병탄되는 바람에 스스로 근대를 확실하게 열어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어찌 되었든 강점기에 우리는 근대적 상업자본과 마주치게 된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된 미츠코시백화점, 구 미도파백화점이자 옛 현대백화점의 일부인 조지아백화점, 현재는 건물도 헐리고 사라진 미나카이백화점 등이 있었다. 당시 백화점은 포복상에서 출발, 점차 현대의 백화점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지하나 꼭대기층에 식당을 들이는 방식도 이때 시작됐다. 이 전통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수많은 백화점들이 건물 꼭대기에 가장 유행하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들고 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경성의 조선인 부자들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

도 타 보고 식당가에서 최신 유럽 음식 내지는 일본화한 양식을 먹어보게 된다. 돈가스, 비후가스, 스테이크 같은 음식이 그렇게 조선에 전해졌고, 나중에 한국만의 경양식(輕洋食)이라는 장르로 바뀌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피자과 스파게티, 치킨은 대체로 백화점에 잘 보이지 않았던 듯하다. 치킨은 60년대 이후, 피자과 스파게티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에서 70년대나 되어서야 파는 품목이 되었다.

피자는 치킨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 배달 서양음식의 원조였다. 70, 80년대는 피자가 대세를 주었다. 미국에서 수많은 브랜드가 대도시의 노른자위 땅에 가게를 열었고 줄을 서서 먹었다. 점차 한국에서 만든 '마이네' 배달 전문 브랜드가 생겨나고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엄청난 시장 확대를 이뤘다. 배달 치킨집이 90년대 후반 고통스러운 국제통화기금 사태(IMF)의 유산이라면, 배달 피자집은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의 한 풍경이었던 점이 특이하다. 이제 피자는 인기 순위에 밀려서 큰 이익이 없으니 브랜드도 많이 위축됐다. 치킨은 물론이고 아이스아메리카노도 배달되는 지금, 피자 배달의 기억은 한국인의 음식사(史)의 중요한 대목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남겨둔다.

원고를 쓰면서 고희의 피자집을 검색해보니 인터넷 빅데이터가 열 곳을 추천한다. 거대한 치킨브랜드 사이에서 분전하는 고희 피자집 사장님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여름철 주의해야 할 귀 질환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수영장 등에서 외이도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세척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게 좋고, 치료를 통해 적절한 산성화를 회복하면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통증이 심할 경우와 외이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과거 삼출성 중이염으로 고막에 환기관 시술을 받았던 어린이라면 되도록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환기관은 고막에 작은 구멍을 유지해 공기가 통하게 하는 작용을 하기에, 귀로 많은 물이 들어가면 환기관을 타고 고막 안쪽 중이까지 물과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막에 삽입된 환기관은 대부분 일정 기간 후 저절로 빠지면서 고막이 아물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물놀이 시 귀뚜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귀에는 외이도에서 탈락된 각질 세포와 지방성 성분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외이도 피부를 보호하고, 외부의 먼지와 흙이 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외이도 입구 쪽에서 잘 밀려 나오던 귀지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과도하게 면봉을 사용해서 귀지를 외이도 안쪽으로 다시 밀려 들어가게 해서 귀지가 외이도에 쌓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외이도가 좁기 때문에 공간이 거의 막히게 될 수 있고, 성인도 여름철에 습기로 땀이 차고 자주 면봉

을 사용하다 보면 밀려 나오던 귀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쌓이기 쉽다. 이럴 때 귀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용액(귀에 사용하는 액체 용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경으로 외이도를 확인, 필요 시 작은 집게 등의 도구나 흡입기로 제거할 수도 있다.

귀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귀가 가려울 때 참고 견디기란 힘들다. 특히 보청기를 귀에 끼고서 덥고 습한 여름을 지내는 것은 더욱 힘들다. 그렇다 고 보청기를 빼놓고 지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귀를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귀가 가려운 것은 귀뚜멍 안의 외이도 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름이 되면 좁은 귀뚜멍 안에 습기가 차기 쉽고 특히 귀속에 보청기를 끼고 있을 경우 공기가 통하지 않아 눅눅해지기 쉽다.

염증을 예방하려면 외이도를 건조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물이 들어갔다면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약 30cm 거리에서 20-30초 가량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여름에는 습관적으로 귀뚜멍을 긁어서 결국 만성 외이도염이 생긴 환자를 자주 만난다. 일시적인 외이도염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대개 외래 치료와 투약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귀를 후비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고집한다면 보청기를 끼기 어려울 정도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손대고 싶을 만큼 귀가 불편하다면 이비인후과 의사와 상담해 귀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 교육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 관장

을 지식·직업에 허비한다"고 말할 바 있다. 아울러 다보스포럼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80% 이상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직업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에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측이 어렵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은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반면 비예측적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이에 맞춰 교육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21세기의 학생을 20세기의 교실에서 19세기의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말처럼 'Fast follower' 육성에 초점을 맞춰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진데 반해, 미래에는 'First mover', 즉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창의교육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그런데 창의성이 반드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만 의미할까? 혁신의 아이콘 애플사를 이끌던 스티브 잡스는 "진정한 창조와 혁신은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미래인재의 필수 요건인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찰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입된 교육이 바로 교과서를 벗어나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체험학습이다. 과학은 근대에 들어 인류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유용하고 객관적인 도구로 자리잡았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과학이 아닌 것이 없는 셈이다. 즉 창의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은 바로 과학에 대한 이해다.

과학을 가장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과학관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155개의 과학관이 있고,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육성과 전국민의 과학화 추진을 시작으로 1990년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들어섰으며 2008년 수도권의 국립과천과학관, 2013년 호남권의 국립광주과학관에 이어 국립대구·부산과학관이 연이어 개관했다.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과학기술과 시민의 교육 역할을 위해 건립된 과학관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필수적이지자 대국민 최접점에 있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과학을 가장 재미있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수립한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에도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추세에 맞춰,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과학 소양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 해법으로 '디지털 AI, 생체환경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미래세대 역량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제공'을 과학관의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과학관을 미래인재양성의 중심지로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난히 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여름방학은 우리 아이들과 과학관에서 과학을 놀이처럼 즐기면서 창의력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社說

'쓰레기 소각장' 설치, 5개 구청 적극 나서라

한시가 급한 광주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사업이 또다시 난항이다. 울 초만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을 자치구들이 서로 유치하려 했지만 막상 부지 확정 단계에 들어서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이다. 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이 반대하자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 자체가 추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다. 이 때문에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시급히 건립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기본적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기초단체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5개 구는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1년 10월 시에 구 단위가 아닌 시 단위의 '광

역 소각장'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구청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아직도 부지 선정에 못한 상태이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각 구청장들의 미온적 태도도 한 몫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2년 뒤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바람에 주민 설득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의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레저·복지시설을 갖춘 명품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는 후보지들 모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광주 시민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이 없으면 이젠 집앞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개 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한시라도 빨리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5·18 다크투어리즘' 역사 콘텐츠 담아내야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은 많고 역사와 교훈을 담은 콘텐츠는 적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5·18과 연관이 적은 프로그램 일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해 다크투어리즘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체부와 광주시, 2024년일일당245사업단은 지난 5월부터 전남로 일대에서 5·18을 체험하고 배우는 '트립 투 메모리'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는 회차당 20명으로 현재까지 총 7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투어 프로그램 절반이 '문화예술 체험'으로 구성돼 있어 '역사 체험 여행'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어 일정을 보면 오후 1~2시 전 일일당 프로그램과 공연 관람,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걸쳐 전일일당245와 5·18 기록관을 도슨트·가이드와 함께 둘러본다. 오후 4시부터는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방문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수행사인

'모람 플랫폼'은 "공연 프로그램에서 5·18과 연관된 음악도 공연할 예정이며, 예술의거리와 대인야시장 또한 5·18 관련 전시나 향기 흔적 등이 많이 있어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관광 전문가들은 다크투어리즘을 모토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연관성이 다소 결여된 콘텐츠는 투어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견해다. 특히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다크투어보다 자칫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국립5·18민주지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다크투어리즘은 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곳을 방문해 추모를 하고 가르침을 얻는 '역사 교훈 여행'이다. '5·18다크투어리즘'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중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가수들 콘서트가 열릴 때면 김대중 컨벤션센터 인근 카페는 팬들의 아지트로 변신한다. 임영웅의 얼굴이 담긴 대형현수막이 3층 카페 건물을 뒤덮고, 거리엔 응원구가 새겨진 플래카드가 내걸린다. 카페 안역시 가수의 사진과 각종 자료들로 장식되고, 하루 종일 그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덕메(덕질 메이트·함께 덕질하는 친구)와 골도 없이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은 팬들의 즐거움이다.

팬인 지인도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 일본에서 덕메가 찾아오면 광주가 고향인 재미의

덕질의 성지

기획한 특별한 취향 여행 플랫폼 '덕질 살롱'이다. 공모를 통해 기타타이거즈, 포켓몬 카드, 무명배우 띄우기, 코스프레 연극 등 22개 덕질이 선정됐고 원하는 사람은 일일 참가자로, 주간 덕질 여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공유카페와 덕질 살롱은 충장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광주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획됐다. '덕질의 성지 광주'가 이 두가지 미션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며칠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린 BTS팬인 지인도 국내는 물론이고 멀리 일본에서 덕메가 찾아오면 광주가 고향인 재미의

클립 리처드의 이화여대 공연 영상, '러브레터' 등 좋아했던 영화,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빅뱅, BTS까지 한국대중문화와 팬문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는 추억을 불러왔다.

덕질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생각해 보면 저마다 몰입했던 무언가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그 무언가를 찾아보자. 어쩌면, 덕질이 당신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